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장석주 시인

울 추석에도 고향에 가지 못했다. 시골집 들안 대추 나무 가지의 열매들은 단맛이 뻥 채로 머물고, 뒤뜰의 석류나무는 과피(果皮)가 벗어친 채로 석류가 알알이 들어찬 제 붉은 속살을 드러내며, 멧비둘기 구구대는 앞산의 산밭나무에 매달린 푸른 밤송이들은 절로 벌어져 알밤을 투두둑 털어낼 테다. 아버지가 짓고 가족과 어린 시절을 보낸 옛집은 사라지고 없다. 고향마을의 느티나무는 무성한 가지를 드리운 채 넘부르고, 너른 들과 땅을 휘감아 돌아가는 강과 바람은 그대로이건만 고향의 새 주인들은 낯설다.

고향에서의 기억은 왜 달콤하고 아련한가? 그것은 과거를 회상하게 운색하는 뇌의 환각작용 탓일까? 정지용의 시는 내가 오래 전에 낙원에서 추방된 자임을 일깨우며 서글픔에 빠뜨린다.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라노//산쟁이 알을 품고/뿌리가 제철에 울건만//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머언 항구(港口)로 떠도는 구름//오늘도 뉘 끝에 홀로 오르니 /흰 점 꽃이 인성세로 웃고//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종교칼럼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추석 명절 연휴와 임시공휴일까지 오랜만에 가족들이 만나고 또는 좋은 인연과 담소도 나누는 시간이 지났다. 경제 위기, 집안 위기, 다양한 주제의 사람 사는 이야기 중 환경과 먹거리 이야기는 빠질 수 없는 주제 중의 하나였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수확량은 늘었다고 하지만 우리의 농업은 화학농업으로 일관하여 왔다. 이로 인해 많은 증산효과를 보았으나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과 이에 따른 퇴비 사용량의 상대적 감소로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떨어지고 산성화됨으로써 식물의 내병성이 약해지고 이에 따른 병충해의 피해가 늘게 되었다. 이 병충해를 막아 보겠다고 사용하는 각종의 농약은 그나마 익충이나 유익한 박테리아를 전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줄기와 열매와 뿌리에 농약이 묻어 옮겨지고 일부 침투성 농약은 식물체 내에 흡수되어 그 독성이 우리 몸에 직접 전달되거나 가족을 통해 간접으로 전달되어 축적되게 된다.

농약은 병충해 퇴치 목적만 아니라 착색, 생산촉진 제초, 유통 과정의 신선도 등을 위해 구분별하게 사용

그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리

소리 아니 나고/매마른 입술에 쓰디쓰다//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 (정지용 '고향'). 산쟁이 알을 품고 뿌리가 우는 고향에의 기억은 달콤하고 아련하다. 그것은 지금의 고향이 아니고, 흘러간 옛날은 오늘의 괴로운 현실의 대안이 될 수가 없다.

고향을 떠난 자는 다시는 그 아늑하고 그리운 고향을 찾지 못한다. 고향을 그리는 나침반은 언제나 어린 시절의 목가적 생활을 가리킨다. 내 마음에 자꾸 향수병이 도지는 까닭은 무엇인가? 노스텔지어의 바탕은 지금 여기에 없는 것, 즉 옛날을 향한 동경과 그리움, 되찾을 수 없는 시간 회복에 대한 열망이다. 프랑스 철학자 블라디미르 안셀레미치는 "향수병은 불가능한 것에 직면했을 때 갖는 절망이다"라고 한다. 노스텔지어는 고향 없음이 아니라 특정 장소로 돌아갈 수 없음, 고향 회귀의 불가능성에서 발원한다. 그 불가능성은 어떤 지리적 좌표를 찾는 게 아니라 고향에서의 시간을 회복하는 일인 까닭이다. 타향을 떠나 떠도는 자는 삶을 낭비하리라는 불안에 사로잡힌 채 존재한다. 이것은 노스텔지어의 질료적 바탕이 고향 회귀의 불가능함, 그리고 방향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걸 암시한다.

내가 고향을 떠난 것은 열 살 무렵이다. 탈향의 세월이 쌓이면서 고향의 말도 다 잊고, 고향의 빛도 다 떠난 지금 고향은 내 마음의 지리학에서만 찾을 수 있다. "고향을 감미롭게 그리는 사람은 아직 주동이가 노란 미숙 자일 것이다. 모든 장소를 고향이라고 느낄 수 있는 자

는 이미 강한 자다. 전 세계를 타향이라고 생각하는 자야말로 완벽한 인간이다." 나는 12세기 스피라 철학자 생 빅토르 후고의 말을 여러 책에서 만났다.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되어도 고향에 집착한다면 그는 인격의 성숙함에 이르지 못하는 영원한 미숙아에 속할 테다.

나는 토성의 영향 아래 태어났다. 내가 원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나는 일찍이 고향을 떠났다. 고향을 잃은 채로 떠돌며 사는 동안 불신과 비관에 내 삶을 통째로 내주었다. 세상을 떠도는 자의 마음에서 빛이 꺼지고 무상함에 빠지기 쉬운 까닭은 분명 삶의 보람 없음과 기쁨이 배제된 결과인 오늘의 삭막함과 연관이 있을 테다. 나는 인격이 여문 어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애초에 글러버린 꿈일까? 나는 고향을 잃어버린 삶을 사랑한다. 아니,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고향을 잃은 삶을 사랑하지 않고 견디며 살 수 있다. 내가 이미 오래 전부터 고향 없이 살아온 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탕약을 가득 채운 잔을 들이켜고 고향 상실자로 살아온 지 반세기가 넘었다. 삶은 쓰디쓰다. 하지만 후회와 서글픔은 열어지거나 사라졌다. 그렇건만 고향을 둘러싼 기억의 화사함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고토에서 몸은 멀어지지만 마음이 품은 노스텔지어는 사라질 기미가 없다. 오, 그대 다시는 고향을 찾지 못하리! 세계는 넓고, 나도 가슴에 남은 한층의 노스텔지어를 품고 늙어간다. 살아보니, 늙음이 인생의 변수가 아니라 상수인 걸 알겠다. 죽음이라는 외부가 달치지 전까지 나는 더 꼼꼼하게 늙어갈 테다.

믿음이 생명운동이다

된다. 이리다 보니 농약의 일차적 피해자는 농약을 직접 살포하는 농민들이다. 한 보도에 따르면 57%의 농민이 농약 중독 증세를 경험하였다 한다.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은 토양을 산성화 시킨다. 딱딱해진 토양은 비료를 흡수하지 못해 비료를 뿌려도 70% 이상이 유실된다. 그러나 보니 더 많은 비료를 뿌리고 비료의 기운으로 자란 농산물은 병충해에 더욱 약해지고 병충해를 막기 위해 농약을 살포하면 토양의 유효 박테리아가 전멸하여 토양은 더욱 척박해진다. 이로 인해 수확량은 점점 떨어지니 남는 것은 한숨이고 처지는 것은 병뿐이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라 한다. 건강한 신체는 건강한 먹거리가 기본이다. 지금 우리가 겪는 건강 문제는 극소수를 제외한다면 먹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의 문제다. 못 먹어서 고향살이 오거나, 당뇨가 오거나, 암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 못 먹을 것을 먹은 탓이 많다는 얘기가. 나쁜 공기, 나쁜 물, 나쁜 음식, 이것이 문제다. 그러나 농촌의 현실이 이 지경이니 어떻게 안심하고 먹을 음식을 구할 수 있겠는가.

그 길이 비록 어렵다 하더라도 뜻이 간절하면 열릴 수밖에 없다. 그 첫째는 원(願)을 세우는 일이다. 무공해 음식을 먹겠다는 지극한 원을 세우는 것이다. 무공해 농산물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무공해 농업을 하겠다는 사람도 많아진다. 무엇보다 농사를 짓는가, 모두 먹고 살기 위해서다. 하지만 옛날에는 자기 식구 먹고 살 자급의 농사였으나 지금은 시장에 내다 팔아 가게를 운영할 돈을 만들기 위한 농사를 짓는다. 그러

니 자기 먹을 것도 아닌데 돈만 된다면 농약이 무슨 상관이나, 하게 된다.

이제 농약의 독성을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일부이지만 구분 경작을 한다고 한다. 자기 가족 먹을 것과 시장에 내다팔 농사를 구분해 짓는다고 한다. 이것이 시장경제가 가져다준 농심이다. 하지만 농약을 안 해도 시장에 팔 농산물이 돈이 된다면 농약을 할 사람이 없다. 농약해서 두 가마 생산할 것, 농약 안하고 한 가마 생산했는데 그 값이 같다고 한다면 농약을 포기할 수도 있다. 무공해 농산물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농약 안 하는 삶이 수치맞게 하는 첫걸음이다. 그러려면 농민 스스로가 가까이 무공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소비자가 생산자의 수익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렇다고 정말 무공해 농산물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농심이 멍들어 버린 지금의 현실에서...

그래서 믿음(信)이 필요하다. 원(願)이 10분이면 믿음(信)이 10분이다. 이 믿음을 이어가는 길, 이것이 생명운동이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안다. 바로 다른 영역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없는 절대적인 약자가 있다는 것이다. 연일 계속되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구분별한 환경 오염은 이제 농산물뿐만이 아닌 수산물 먹거리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해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가오는 명절 차례상에 올라가는 음식이 맛과 더불어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였으면 한다.

광주의 AI 기반 미래교육

서 2022년 12월 기준 보급률 37%로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하위권인 13위를 기록해 더욱 더 기기 보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스마트 기기 보급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스마트 기기 보급에서 학교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이전에는 학교에서 스마트 기기를 관리, 대여, A/S 업무를 맡았는데 이제부터는 교육청에서 직접 이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둘째, 학생들에게 보급한 스마트 기기를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통 학교에서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에서 벗어나 대여를 통해 학교는 물론 학교 밖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스마트 기기 보급 관련 예산을 절감하고자 노력했다. 코로나19 시기에 보급되었던 중고 태블릿 PC를 초기화시켜 대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에게 보급하고자 한다. 그리고 남은 기기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예정인 초등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은 1인 1스마트 기기 보급으로 교실 수업의 선진적 변화가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 교실에서 선보이고 있는 종이 없는 교과 수업이 확산하고 AI 코스웨어와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등을 활용한 학습자 맞춤형 개별 학습이 능동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현재 EBS의 단계적 추천(단추) 서비스와 같은 공공 플랫폼 서비스도 무료로 활용되고 있고 다양한 교수학습용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선보이고 있다.

학생은 앞으로 자신의 디바이스로 수업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학습기록을 누적시킬 수 있다. 6년간 대여한 스마트 기기 안에 학습 자료, 과제, 모둠 프로젝트 결과물을 저장하고 이를 활용해 나만의 e포트폴리오를 누적 관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 진단, 학습 평가, 맞춤형 콘텐츠 활용하는 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를 수 있다.

현재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많은 경우 디지털 기기 활용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생활 환경과 인프라 차이로 인한 디지털 정보 격차가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공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초·중·고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AI·스마트 기기 활용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또 다각적인 AI·디지털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는 등 미래형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아이들은 AI와 더불어 살아갈 세대이다. 이제 AI는 거스를 수 없는 교수 학습의 도구이며 그 기반으로 해서 학생 1인 1스마트 기기가 보급되고 있다. 이러한 교실 환경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실력을 갖춘 미래 세대를 길러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社說

성년 맞은 충장축제...원도심 활성화 계기되길

어제 막을 올린 광주 충장축제가 9일까지 5일간의 추억 여행을 시작했다. 20주년을 맞은 충장축제는 '충·장·발·광(光)'을 주제로 광주 원도심인 충장로와 금남로 일대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올해 축제의 특징은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주도형이라는 데 있다.

공동체의 결속을 상징하는 '불'을 주 테마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추억을 적은 양초를 모아 추억 정원을 조성하고 메인 퍼레이드에서는 핫플 행진과 함께 5m 높이의 장작 태우기가 펼쳐진다. 불앞에 모여 앉아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면서 추억을 공유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체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패 점포를 이용한 추억의 음악다방과 충장로 상인들이 배우가 돼 충장로의 이야기를 전하는 '충장 낭만 관상사' 등 충장로 전성기인 1970-80년대 분위기를 담아 레트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2003년 시작된 충장축제는 올해 성년을 맞아 광주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잡았다. 광주시 동구가 축제를 주최하지만 광주시가 광주를 대표하는 축제에 육성하겠다는 욕심(?)을 보일 정도로 광주의 대표 축제가 됐다. 지난해에는 지구촌 버스커들이 대거 참여하는 '제1회 버스커즈 월드컵'을 개최해 길러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글로벌 축제 가능성을 보여줬다.

광주를 대표하는 전국적인 축제라 부족한 현실에서 충장축제는 광주를 상징하는 축제에 소중하게 키워 나가야 할 자산이다. 그러기 위해선 축제 기간에만 반짝 사람이 몰리는 단발성 행사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충장축제를 만든 취지가 관광객들을 추억 여행으로 초대해 충장로의 전성기를 재현하자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충장축제가 갈수록 쇠락해 가는 충장로 등 원도심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로수 킬러' 흰불나방 유충 적극 방제 나서야

'가로수 킬러'로 불리는 미국 흰불나방 유충이 폭증해 광주지역 가로수 수천 그루가 고사 위기에 놓였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 광주시 서구양동시장 일대 광주전면에는 노랗게 말라 죽은 나무 수십 그루가 늘어서 있었다. 나무 잔가지 마다 하얀 털이 달린 유충들이 들어앉아 잎사귀를 다치는 대로 갹아먹고, 유충이 거미줄처럼 실을 토해내 만든 그물망도 가지 곳곳에 흥칙하게 남아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산책로를 기어다니는 유충을 피해 다니느라 곤혹을 치르고 있다. 유충은 특히 동구 학동 양림고 일대부터 북구 임동 챔피언스필드 인근까지 퍼져 있어 출몰이 피해를 입은 가로수만 100여 그루가 넘는다.

미국 흰불나방으로 인한 피해는 아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9년부터 광주·전남에서는 가로수나 조경수를 갹아 먹는 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9년에만 광

주·전남에서 3만 1000여 그루가 피해를 입었다. 올해는 광주에서 가로수 7632그루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 중 서구에서만 7285그루가 고사 위험에 노출됐다. 이상기온 등으로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8월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산림병해충 발생 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하기도 했다.

흰불나방은 거리의 나무들을 마구잡이로 갹아 먹는 약명충은 해충이다. 보통 3~5월, 8-9월 두 차례 발생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남지역에서는 연간 세 차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가로수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식재되는 만큼 지자체는 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무엇보다 흰불나방은 1-2령기 유충일 때 방제 효과가 큰 만큼 적절한 시기에 방제하는 게 중요하다.

당국은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방제체계를 가동해 흰불나방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항저우아시안게임 폐막을 앞두고 막판 메달 경쟁이 치열하다. 최고 인기 스포츠인 야구가 대만에 완패해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됐고, 국내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배구와 농구도 '우물 안 개구리'였음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평소 주목받지 못했던 핸드볼, 배드민턴, 근대5종, 수영, 펜싱, 양궁 등 선수들은 눈부신 투혼으로 감동의 드라마를 쓰고 있다.

메달의 색깔은 금은 동 세 가지이지만 메달까지 이르는 과정의 사연은 수 만 가지다. e스포츠에 출전한 44살의 김관우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 나서야 "맨날 야구실만 다닌다"

며 꾸중하던 어머니로부터 "잘했다"는 칭찬을 들었고, 21년 만에 한국 탁구의 메달을 금빛으로 바꾼 신유빈은 뒤집힌 태극기를 바로잡아 "애국심도 금메달값"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메달도 있다. 남자 롤러스케이팅 3000m 계주에서는 "김치국 세리머니"를 하다가 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놓치고 나서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스포츠 교훈을 되새겨야 했다.

흔히 노력과 성과를 논할 때 '1만 시간

의 법칙'을 말한다. 한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스포츠 선수는 하루에 3시간씩 10년 동안 노력해야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법칙은 꾸준히 성실하게 노력하면 언젠가는 보상 받을 것이라는 '공정한 세상 가설'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듯이 세상은 말처럼 그렇게 공정하지 않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따려면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성공에는 먼저 기회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 조력자와 가정환경, 때, 문화, 행운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재능은 저절로 꽃피지 않는다. 노력 없는 성취 또한 없다.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선수들은 메달 획득을 위해 1만 시간을 넘어 2만, 많게는 4만 시간 이상 열정을 불태왔을 것이다.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13일부터 목포 등 전남 곳곳에서 전국체전이 열린다. 내일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모든 선수들을 응원한다.

1만 시간의 노력

/유재만 편집담당1국장 jkyou@

기고



위건옥 광주시교육청 미래융합교육팀장학사

교육부는 최근 디지털 교육 대전환을 위한 하이터치 하이테크(High-touch High-tech) 중심의 환경에서 학교와 교사 역할을 담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중 하나인 'AI 디지털 교과서'는 오는 2025년 수학, 영어, 정보교과, 국어(특수교육)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그리고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은 1인 1스마트 기기 보급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전국 시·도교육청은 초·중·고교 학생 1인 1스마트 기기 보급을 추진 중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같은 교육부의 교육 정책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에 맞춰 '인간다움과 미래다움을 기르는 AI 광주 미래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 1인 1스마트 기기 보급, AI팩토리 미래교실 구축, 무선 랜방 확충 등 디지털 기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광주는 스마트 기기 분야에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